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정선희**

〈차 례〉

1. 서론
2.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양상
 - 1) 아들에게 엄하지만 은근한 정 표현하는 아버지
 - 2) 아들 평가의 척도가 되는 어머니
 - 3) 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교육하는 아버지
 - 4) 딸을 분신으로 인식하기에 더욱 엄격한 어머니
3.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17·18세기에 주로 향유되었던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소씨삼대록> 연작과 <현몽쌍룡기>·<조씨삼대록> 연작에 나타난 부모-자녀 간 관계 양상을 자녀 훈육의 덕목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가문의 창달과 계승에 주된 관심이 놓여 있는 소설들이므로 어떠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전수 하려고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했는가 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들에게 엄하지만 은근한 정을 표현하는 아버지, 아들 평가의 척도가 되는 어머니, 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교육하는 아버지, 딸을 자신의 분신으로 인식하기에 더 엄격한 어머니 등의 부모상(父母像)이 추출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엄한 가르침과 강한 체벌이 종종 부각되었는데 특히 혼인이나 색탐(色貪)에 관련된 부분들에 민감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혼인과 제가(齊家)에 관련되는 경우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작품의 주된 서사가 가정 내에서의 부부 갈등이나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일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RP-지원사업에 의한 결과임.

** 이화여대 학술연구교수.

것이며, 사대부가 여성들이 주된 독자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를 통해 국문장편 고전소설 향유층이 자녀를 어떤 인물로 키워내고자 했는지, 어떤 인간형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부모-자녀 간 관계 속에서 소망하던 바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아울러 17세기 후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가부장제, 종법적인 부계 가족 질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등이 당대인들의 삶과 의식에 침투하여 작동하는 양상,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은근히 저항하면서 행동하던 인물군상의 복잡다단한 갈등과 심리 등을 읽어낼 수 있었다.

주제어 국문장편소설, 17세기, 18세기, <소현성록>, <현몽쌍용기>, <조씨삼대록>, 부모·자녀 관계, 부모상(父母像), 사대부가 여성

1. 서론

17·18세기에 주로 향유된 ‘연작형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¹⁾’은 국문장편소설의 초기작에 해당하며 아버지-아들-손자 대의 이야기를 골조로 하여 부부 갈등을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읽는 재미를 주는 작품군이다. 또한 이들은 조선 후기 사회의 문학적 산물이기에 당시의 풍속이나 생활과 같은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소설이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삶의 진솔한 부분과 함께 보다 미시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특히 국문장편소설의 주 향유층은 사대부가였고 이들은 이 작품들을 자신의 실생활과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 필사하고 전수하며 애독하였기에 이들의 가치관과 인생관 등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

1) 전편·후편으로 연작되어 있으면서 한 가문의 삼대(三代)에 걸친 이야기를 담은 소설군으로, 소현성록·조씨삼대록 연작,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연작, 현몽쌍용기·조씨삼대록 연작, 성현공숙렬기·임씨삼대록 연작이 있다.

게 된다.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은 가문의 창달과 계승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부간, 형제간 등의 관계 양상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관계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주목하여 읽어야 하며, 특히 아버지 대(代)의 인물들과 이를 이어갈 자녀대의 관계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 국문장편소설에서는 가문의 계승이 서사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훈육하는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소설 향유층들이 자녀를 어떤 인물로 키워내고자 했는지, 어떤 인간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부모-자녀 간 관계 속에서 소망하던 바도 알게 될 것이다.²⁾ 아울러 17세기 후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가부장제, 종법적인 부계 가족 질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등이 당대인들의 삶과 의식에 침투하여 작동하는 양상, 그러면서도 이에 대해 은근히 저항하던 인물군상의 갈등과 심리 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 작품들에 관한 연구는 연작 상황을 고찰하거나 작품에 대한 고증과 분석을 행한 연구에서부터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 인물 형상과 갈등의 의미를 탐구한 연구, 표현 방식과 서사 기법에 관한 연구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³⁾ 하지만 인물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관계 양상이 부각되어 연구되었⁴⁾, 효(孝)나 모성(母性)에

2) 이처럼 작품 향유층이 그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여러 경로를 통해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작품의 중간이나 말미에서 죽는 인물들을 가문의 다른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덕목을 추모했는가를 살핀 바 있다. 정선희,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망자 추모에 담긴 역할과 의미-서모, 아내, 아우 제문 분석을 중심으로」, 『비평문학』35, 한국비평문학회. 2010. 3.

3) 이에 대한 연구들은 참고문헌목록으로 제시한다.

관한 논의⁵⁾가 있을 뿐 부모-자녀 간의 관계 양상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 작품에서 부모·자녀 간 갈등보다는 부부간 갈등이나 혼사 장애와 그 해소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연구사의 흐름이기는 하다. 하지만 갈등 양상이 첨예하거나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문의 이야기가 주된 뼈대를 이루는 소설인 만큼 그 구성원들이 존중하면서 계승하려 했던 덕목, 가치관, 인생관 등을 찾아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중요시하면서 교육했는가, 둘의 관계양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술했는가 등을 살핌으로써 당대인들의 생활 태도, 인간관계, 교육 방식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삼대륙계 연작형 국문장편소설이 주류를 이루는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의 관계 양상을 부자, 모자, 부녀, 모녀 관계로 나누어 살핀 후, 그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2.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양상

1) 아들에게 엄하지만 은근한 정 표현하는 아버지

<소현성록>은 소광-소경-아들들로 이어지는 소씨 가문의 이야기이다.

4)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4.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5) 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테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소광은 소경을 낳기 전에 죽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실제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대신 그 아내 양부인이 소경을 교육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보려면 소경이 그 아들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훈육하는지를 봐야 한다. 소경은 수십 명의 제자들을 집에 기숙하게 하면서 가르치지만 자신의 아들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단경상이 라는 걸인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사람됨이 성숙하고 글재주가 많다고 판단되자 혼인을 시켜준 뒤 아들들의 교육을 맡긴다. 그래서 단선생이 승상의 열 아들을 모두 가르치게 되는데, 매우 엄숙하게 하면서 잠깐이라도 태만하면 봐주지 않고 많이 때리기까지 한다. 이러한 그의 교육법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승상의 첫째부인인 화씨이다. 그녀는 자신의 둘째아들 윤희가 매를 맞고 오자 크게 화를 내며 앞으로는 그에게 글을 배우지 말라고까지 한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인 화씨는 결국 소승상이나 소월영의 비난을 받는다. 특히 양부인까지 단선생의 교육법을 두둔하자⁶⁾ 화씨는 그제야 부끄러워하고, 소승상은 윤희를 불러다 매를 때리라고 한다. 자신이 공부를 게으르게 한 죄가 있는데도 도리어 스승을 참소

6) 양부인이 천천히 경계하며 말하였다.

“사내자식은 아버가 가르쳐야 한다. 아버 없는 사람은 마지못하여 어미가 가르치는데 이것이 굳이 떳떳한 일은 아니다. 이제 여러 손자들이 비록 너의 친자식이지만 그 아버가 있어 스승을 가려 맡겼다. 남자는 스승에게 하루를 배웠어도 죽을 때까지 아버 같이 섬기는 것이 예의니라. 이리므로 아버지와 스승은 한가지이다. 또 단생이 스승의 자리에 있는데 제자가 태만하므로 책망한 것은 지극히 옳다. 이를 아이가 들어와 말하면 네가 당당히 어루만지며 경계하되 지극히 조심하여 배우고 게을리 태만하여 죄를 얻지 말라고 해야 할 것인데, 어찌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아이를 둔우어 단생을 꾸짖고 글을 배우지 말라고 하느냐? 단생이 어질지 않아 모든 아이들을 잘못된 도(道)로 가르치는 형세라면 남편과 상의하여 내어보내고 제자를 삼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전에는 스승이므로 가장 중한 사람이니 제 아버도 마음대로 못하려니와 더욱이 어미의 위엄으로 바깥 가장이 있는데도 스스로 처단하여 가르쳐 스승을 배반하라 하였느냐? 걱정하건대 예(禮)를 건너 뛰어 행하는가 싶다.” <소현성록> 4권 78~79면. 정선희외 역주, 『소현성록』1, 소명출판사, 2010. 346~347면.

했느냐고 하면서 심하게 친다. 이렇게 스승의 체벌에 승복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후 아이들은 모두 스승의 책망에 대해 감히 내색하거나 고하지 못하고 조심하며 배우게 된다.

소경의 아들들 중 가장 걸출한 인물이며 가문 계승권을 넘겨받게 되는 소운성은 나이가 4~5세가 되도록 글을 배우지 않는다. 부모가 가르쳐도 입을 열지 않고 8세에 이르도록 글을 한 자도 알지 못한다. 그래도 아들의 잠재력을 알아차린 소승상이 구태여 엄하게 가르치지 않고 다만 기운을 곁잡아 제어하면서 배우기를 강권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스스로 서고에 가서 『육도(六韜)』와 『삼략(三略)』 등 병법서(兵法書)를 한 번 펴보고 그 뜻을 깨달아 서너 달 만에 이에 담긴 모략을 완전히 터득한다. 그러나 병서(兵書)에는 치국(治國)과 치란(治亂)이나 전쟁에 관한 일들이 많으니 당시와 같이 요란한 세상에서는 좋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한 승상이 염려하여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훈계한다. 그래서 운성은 호탕한 기운을 줄이고 유학(儒學)에 힘써 글을 깨우치는데, 억지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한 번 지나치면 외고 귀로 들으면 해독하여 늘 스스로 읽어 3년 만에 만 권의 책을 통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아버지 소경은 아들들을 위해 선생님을 집에 초빙해 두고 가르치거나 아들의 잠재력을 믿고 기다려주기도 한다. 물론 국문장편소설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만 이같이 스승을 두고 학문을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아들의 생활의 면을 훈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연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엄하게 다스리는데 특히 여자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소승상의 아들들 중 셋째 운성과 여덟째 운명의 일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둘 다 예(禮)에 맞지 않는 혼인 절차, 여성 편력, 창기와 노는 것 등으로 종종 꾸중을 듣는다. 운성이 아버지께 크게 혼나는 첫 번째 장면은 여

자를 겁탈한 일과 형 소저를 몰래 보고 마음에 둔 일 때문이다. 서모 석과가 장난으로 운성의 팔뚝에 앵혈(鶯血)을 찍어놓자 이것을 없애기 위해 그녀가 양육하던 소녀인 소영을 겁탈했다. 또 친구인 형씨 자제들에게 놀러갔다가 그 누이인 형 소저를 우연히 보고는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 되고 외조부에게 부탁하여 혼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인은 부모가 정해 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간 여인을 미리 보고 마음을 정한 것은 큰 잘못으로 규정된다. 이런 일들을 나중이야 알게 된 승상이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오래도록 근신하게 한다. 승상의 어머니 양부인이 용서해 주라고 하지만, 그의 준엄함은 엄동설한의 찬 서리 같다. 혼인을 했음에도 신방(新房)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헌(書軒)에서 난간에 꿇어 앉아 날을 마쳐도 아버지는 아들을 본 체도 않는다. 이에 아들이 더욱 조심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수십여 일을 자면서 아뢰는 말이다.

“제가 못나서 조심하여 살피고 수행(修行)할 줄 모르지만, 천성(天性)으로 타고 난 바 효성은 있습니다. 옛 사람이 처자(妻子)는 의복 같고 동기(同氣)는 수족(手足) 같다고 했습니다. 동기가 처자보다 중한데 하물며 부모는 따져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어린 아이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으며, 비록 옛 사람 황향(黃香)이 베개를 붙이고 누워 이불을 따뜻하게 하던 효성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날이 추우니 베개 가에 모시고 춥고 외로우심을 덜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찌 처자의 처소에 돌아가겠습니까? 당초에 형씨를 본 일은 형생 등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쳐 눈 들어 보기를 가볍게 하여 본 것입니다. 또 외조부께서 저의 혼인을 말씀하시기에 어린 마음에 『모시(毛詩)』의 말씀을 따라 삼가지 못하고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인연이 특이하여 만나기는 했지만 어찌 미녀에게 마음이 흠어져 사마상여(司馬相如)와 신생(申生)을 본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근신을 아버지께 아뢰지 못하고 있던 차에, 지난 번 사람의 아들로서 차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광경

을 보았으니 어찌 세상에 머물 뜻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의 사정을 아뢰 수가 있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⁷⁾

이렇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까지 흘리자 승상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지만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는 않고 어서 신방에 들어가라고 한다. 이렇게 엄하게 아들의 잘못을 다스리는 아버지이지만, 아들이 마음의 병을 앓는 대목에서는 안쓰러워하면서 은근한 부정(父情)을 보인다. 운성이 원치 않는 혼인을 하게 되어 명현공주를 둘째 부인으로 맞았으나 첫째 부인인 형씨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그녀를 못 만나게 하자 병이 되어 일어나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대목이 있다. 이 때에 쇠진한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자다가 신음하자, 소승상이 마음이 불안해져서 초췌하고 마른 모습의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고 몸을 어루만지면서 슬퍼한다. “여러 자식이 있지만 이 아이가 가장 총명하고 강단 있어 장부의 풍채가 있으니 사랑하고 미더워하여 나의 후사를 이을까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뜻을 굳게 잡지 못하여 보통 사내의 신의를 지키느라 장부의 강한 마음이 없어 이 지경이 되었는가?”⁸⁾라고 탄식하기도 한다. 평소 그의 강직하고 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부자가 대면했을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소로 돌아간다. 이렇듯 마음으로는 아끼지만 겉으로는 늘 엄하게 아들을 교육하는데⁹⁾, 잘못하여 매를 때릴 때에는 큰 매로 5~60대씩 쳐서 살갓과 살집이 떨어져 나가고

7) <소현성록> 5권 86~87면. 정선희 역주, 『소현성록』2, 소명출판사, 2010. 88면.

8) <소현성록> 6권 96면. 정선희 역주, 앞의 책, 205면.

9) 실생활에서도 당시의 아버지들은 아들을 엄하게 다스렸던 듯하다.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은 <목재일기>에서, 아들이 집안의 제사에 잘 참여하고 경서(經書)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독려했으나 능력이 모자라자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오물을 입에 넣으며 코에 물을 붓는 등 가혹한 처벌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고문서학회지,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2. 140~143면.

피가 가득해도 멈추지 않을 정도이다.

소승상이 이처럼 혼자 있을 때에만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아껴주는 정도였다면, 이보다 더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상은 <조씨삼대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진왕 조무와 초공 조성 두 쌍둥이 형제가 주인공인 <현몽쌍룡기>의 후편으로,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진왕과 초공이 가문의 기둥으로 서사를 이끌어 가는데 두 인물은 서로 다른 성향을 보여 색다른 재미를 준다. 즉 진왕은 무인(武人) 기질이며 성격이 화끈하고 감정적인 반면, 초공은 문인(文人) 기질이며 온화하고 논리적이다.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이러한 성품과 관련이 있는데, 초공은 다른 국문장편소설의 아버지들에 비해 자상한 면모를 보인다.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학문을 가르치는가 하면 며느리가 아플 때에는 직접 진맥하고 약을 지어먹이는 등 친딸처럼 아끼기도 한다. 이러한 자상함을 아들에게도 베푸는데, 유현이 잘못을 저지르자 엄하게 벌을 주기는 하지만 아파 병이 들고 긴 반성문을 써서 사죄하자 마음을 풀고는 누이들에게 아들의 기특함을 자랑하기도 한다. 그 아이가 뛰어나고 효성스러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고쳐 행실을 닦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늘이 내신 어썩과 효성스러움이고 넓은 식견이라고 추켜세운다. 또한 아들에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고 다독여주기도 하는데 이에 감동한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릎에 엎드려 눈물을 흘린다. 밤에도 데리고 자면서 곁에 누워 있는 아들을 어루만지고 손을 잡아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호뭇해한다.¹⁰⁾ 유현이 3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데리고 자면서 ‘이불 속에서 아들과 몸을 붙여서 끝없는 정이 천륜 이상으로 특별’하여 유현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감동함을 이기지 못하여 공경하고 삼가는 효성이 비할 곳

10) <조씨삼대록> 14권 47~50면. 김문희외 역주, 『조씨삼대록』2, 소명출판사, 2010. 358~360면.

이 없게’ 된다.¹¹⁾ 보통의 아버지상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다. <소현성록>과 <조씨삼대록>에서 아들들은 대체로 한 달 중 10일에서 13일 정도를 아버지를 모시고 외당(外堂)이나 서헌(書軒)에서 자며 그 중 며칠은 조부를 모시기도 한다.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지는 날에는 다른 형제들과도 함께 지내면서 남자로서 지켜야 할 행실에 대해 배우고 친목을 다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아들 평가의 척도가 되는 어머니

<소현성록>의 소현성은 유복자이다. 그래서 가모장(家母長)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양부인답게 친히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소현성은 너무 비범하여 두 살이 못 되어 글자를 깨쳐 알고 세 살에 성인의 경전을 낭랑하게 외운다. 이렇게 조숙한 것 때문에 행여 나중에 크게 되지 못할까 근심한 양부인은 아들을 서당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책도 보지 못하게 한다. 일곱 살이 되어서야 글을 가르치는데 한 가지를 들으면 백 가지를 통달하고 백 가지를 통달하면 천 가지를 깨닫는 총명함을 보인다. 아침마다 책을 끼고 어머니 앞에 나아가 배우는데 부인이 한 번 가르치면 일일이 새겨들어 한 번 읽으면 외우니 힘들게 하는 일이 없다.¹²⁾ 서실(書室)에서 지내면서 새벽닭이 처음 울 때 세수하고 어머니 방 창문 밖에서 소리를 나직이 하여 문안을 여쭙고 회답을 기다려 두 번 절하고 물러나는 등 하루 네 번 문안드리는 일을 충실하게 한다. 늘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기운을 평안하게 하여 어머니 상 아래 꿇어앉은 채로 모시면서 혹 글의 뜻도 여쭙고 혹 시사(詩詞)도 배운다. 이렇게 근신하면서 배우는 행실이 『소학』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한 경우가 많으니 몸이 상할까 걱정스러

11) <조씨삼대록> 10권 101면. 김문희의 역주, 앞의 책, 169면.

12) <소현성록> 1권 14면. 정선희의 역주, 앞의 책, 33면.

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이다.

양부인과 소현성 모자의 경우는 이처럼 훌륭한 어머니에 뛰어난 아들의 조합이므로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어머니의 아들 교육이 부정적으로 서술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로 감정에 휘둘러 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어머니일 경우이다. <소현성록>에서 화부인이 아들 운명을 대하는 대목을 보자. 운명은 여자를 사모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가 하면 여색(女色)에 빠져 창기와 노는 것을 좋아하는 등 감정에 충실한 인물이다. 신선 같은 자태를 지녔고 문장 쓰는 재주도 이태백을 압도할 정도이지만, 사람됨이 ‘문인(文人)·재자(才子)에 경도’되어 있으며 ‘성정이 불 같고 마음이 좁다’고 지적되면서, 맑고 낭랑하지만 너그럽고 두터운 위엄이 운성보다 못하며 어질고 현명하기는 운경보다 못하다고 평가된다. 그의 자질이나 성격 자체가 이렇게 다소 열등하게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그 어머니인 화부인과 결합되었을 때에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화부인은 운명이 유람 가서 만난 이씨와 혼인하고 싶어 상사병에 걸렸을 때에 그를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둔하면서 혼인을 시키자고 한다.¹³⁾ 또 이씨와 혼인 후에 운명이 사리분별 못하고 이씨를 오해하여 죽이려 할 때에도 동조하여 더 심하게 그녀를 폄박하는 등 바른 판단으로 아들을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어머니인 경우, 그 남편 즉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그녀의 탓이라고 인식한다.¹⁴⁾ 소송상도 이 일을 듣고 나서 운명만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화부인의 잘못이라면서 ‘어미의 죄를 아울러 주겠다’고 하고는 아들을 60대나 때린다. 운명이 다 죽

13) <소현성록> 10권 48~49면. 허순우외 역주, 『소현성록』3, 소명출판사, 2010. 265~266면.

14) 이런 면은 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4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어가게 되었는데도 어미의 죄까지 맞으라면서 더 때려 이를 본 화부인이 분해하며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일과 더불어 서모인 석파를 박대하고 어머니의 충고를 제대로 듣지 않은 일 등을 이유로 승상은 6년이 되도록 화부인을 찾지 않는다. 즉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의 잘못을 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여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승상의 누나인 월영까지도 죄에 비해 벌을 너무 과도하게 준다면 서용서하라고 할 정도로 심한 내침이다. 운명과 화부인 모자는 판단력이 흐리다는 이유로 양부인에게 ‘인면수심(人面獸心)’이면서 가문의 법제를 어지럽히고 맑은 덕을 상하게 하는¹⁵⁾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어머니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을 책망하는 예는 <조씨삼대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초공의 아들 유현이 부모를 속이고 정씨와 혼인하려 할아버지에게 부탁까지 한 일이 있는데, 이를 나중에 안 초공이 유현을 꾸짖자 그 어머니인 양정렬이 자신도 벌을 받겠다고 한다. <소현성록>에서와 다른 점은 이 경우에 어머니는 현숙한 어머니이고 따라서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가족들이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데도 어머니 스스로 아들과 함께 벌을 받겠다고 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은 남편이 권유한 것인데, 초공이 자신도 아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터이니 양정렬도 동참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공의 뜻에 탄복하고 또 아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위해 그녀는 즉시 작은 당에 내려와 화관과 비녀를 빼고 죄인의 모습으로 앉는다. 이를 본 유현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된다.

그런데 <조씨삼대록>에서 특별한 점은 이런 상황을 본 조부모가 아들 초공 편을 들면서 며느리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손자의 잘못에 대한 죄

15) <소현성록> 11권 73면. 허순우의 역주, 앞의 책, 397면.

를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하고 아들을 책망하니, 아들의 잘못을 어머니의 자질이나 교육 탓으로만 돌리는, 여성억압적인 시선은 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교육하는 아버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에는 엄하게 가르치면서 은근하게 사랑을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딸에게는 어떠했을까?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국문장편소설들은 17·18세기에 창작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작품들이다. 이 시기는 성리학적인 도덕관념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깊이 침윤되기 시작하는 때였기에 여성의 삶과 위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 성리학적 도덕관념과 종법적인 부계 가족 질서를 이상으로 하면서 남녀균분상속제가 장자상속제로, 윤휴 제사와 외손봉사는 장자 중심의 제사로,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친영(親迎) 제도로 바뀌어, 여성은 친정에서 점점 멀어지고 시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며 일상에서도 여성 차별적 요소가 강화되기 시작한다.¹⁶⁾

하지만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딸을 아들에 비해 덜 아낀다든지 교육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차별적인 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머니의 경우 딸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생활의 면에서 잘 교육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해 오히려 더 엄하게 교육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의 경우 딸의 재능을 알아봐서 학문을 가르치거나 마음으로 아껴주는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의 경우부터 보기로 한다.

16) 이순규,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여성』,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여성문학연구』6집. 2003. ;김경미,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국문장편소설의 초기작인 <소현성록>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직접 교육하는 장면이 묘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딸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는지를 보면 교육 받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소현성의 누이인 소씨 부인 즉 소월영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녀는 종일토록 ‘시사(詩詞)를 화답하여 부르고 바둑으로 소일하여 시인(詩人)의 모습과 풍류 있는 거동’¹⁷⁾이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총명하고 필법(筆法)이 정묘하며, 그림을 아주 잘 그리고 글도 잘 쓰는데 한 때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아 ‘도학 선생’, ‘여자 중의 학사’가 될 만하다고 설명된다. 그녀의 서재 ‘선적루’¹⁸⁾에는 각종 서책 수만 권이 있는데 그녀가 친히 써서 꾸민 책들이 많아 소승상의 장서각보다 특별하다.

고전문학사를 검토해보면, 문집을 가지고 있던 여성 작가가 18명이나 되며 여성들의 시를 모두 합하면 1450여 수, 산문은 170여 편 남아 있다.¹⁹⁾ 이렇게 여성들이 시문(詩文)을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그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딸들도 마찬가지로 글 솜씨가 뛰어나다고 되어 있는데, 석부인 소생 수빙과 수주의 경우가 그러하다. 수빙과 그녀의 남편인 어사 김현이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17) <소현성록> 4권 125면. 정선희의 역주, 『소현성록』1, 소명출판사, 2010. 386면.

18) 선덕누 방[을] 여러주니 심이 드러가 보매 수십 간 텅둥의 산호 누리 옥서안과 칩거리릴 노코 각씩 서책을 촛레로 빠하 일흠 모를 거시 쉬 업고 정묘하며 괴특하야 수만 권 서책이 다 박은 거시 아나 다 소부인의 친히 뼈 장척흔 거시라 공녀이 후대하고 괴이하며 거룩하미 승상의 장서각도곤 더하니 가히 녀똥혹시라 심이 칭찬하물 마디 아니하고 북녁히 디모로 민든 퀘 수십이 노혀시니 열고 보니 온갖 네 명화 쉬 업고 우히 흔 퀘에 무수흔 그림이 다 부인의 만물을 그려 녀흔 거시라, <소현성록> 12권 101~102면. 정선희의 역주, 『소현성록』4, 소명출판사, 2010. 416~417면.

19) 김지용, 『역대여류한시문선해설, 대양서적, 1975. ; 박현숙,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성 문학 인식』, 『한국사상과 문화』4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37면.

시 짓기 내기를 하게 되는데 한사코 짓지 않겠다고 사양한다. 남편과 오라비들이 차운시(次韻詩) 짓기를 계속하여 보채자 마지못해 화답시를 짓는데, 이를 읽어본 남편과 오라비들이 찬탄하며 모인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문재(文才)가 뛰어나다.²⁰⁾ 막내딸 수주도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하며 글을 쓰고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재상가의 딸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²¹⁾이라고 한다. 이런 언급으로 보아 당시의 사대부가에서는 딸들이 글공부를 하고 글을 쓰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지은 글은 감추고 숨겼으며 그 재능도 함부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소씨 가문의 딸들도 모두 재주와 학식이 있었지만 감추었다고 되어 있다.

18세기의 작품 <조씨삼대록>에서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직접 표현되기도 한다. 작품의 주인공인 초공의 장녀 ‘자염’은 그의 첫째 부인인 양정렬의 딸이다. 양정렬은 부인들 중 가장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평가되는 인물인데도 자염이 그녀와 함께 앉으면 누가 더 나은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여인의 풍모를 지녔다고 서술된다. 딸의 자질이 뛰어나더라도 어머니보다는 못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극찬하고 있는 것이다.

광채가 산머리의 아침 해 같고 초산(楚山)에서 난 아름다운 옥을 다듬은

20) <소현성록> 13권 96~98면. 정선희외 역주, 『소현성록』4, 소명출판사, 2010. 192~194면.

21) 휘 즉유로 문혹을 도히 너기시며 글 쓰고 넓으시를 게얼리 아니시거늘 사람이 그 연고를 못즈오니 답왈, 내 상문녀즈로 고스를 아디못흐야 사람의 업슈이 너기미 될가 흐미로다. 모든 형이 다 지혹이 이시되 규방의 소작이라 흐야 곱초고 괴이니, <소현성록> 14권 2면. 정선희외 역주, 앞의 책, 490면.

듯하며 푸른 바다의 진주가 맑은 듯하였다. 덕스러운 성품과 지혜로운 자질이 여자 중의 군자로 훌륭한 여인의 풍모를 지녔다. 그 사람됨이 하늘과 같고 그 뜻이 신령스러워 태임(太妊)과 태사(太姒)의 덕을 갖추었으니 초공이 아니면 뭇 만한 사람이 없었고, 훌륭한 덕성이 나타나니 초공의 덕화(德化)가 아니면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단지 얼굴이 곱다고만 할 수준이 아니라 광채가 멀리서 보면 은근하고 가까이서 보면 향취가 어리어 천지의 정기를 안아 달과 같고 해를 희롱하는 듯하였다. 그 어머니 양정렬과 함께 앉으면 누가 더 나은지를 분간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자염이 더 나왔다. 두 눈의 맑은 광채는 눈을 길게 뜨면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쏘이는데 그 광채가 초공의 눈과 비슷했다. 부녀의 성품이 서로 짝할 만하여 자염의 타고난 정숙하고 요조한 기질이 초공의 자녀와 진왕의 자손 중 으뜸이었다. 그래서 초공이 마음이 아파 탄식하며 말하였다.

“남자 아이가 되었다면 공자와 맹자 이후 처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끼고 사랑함을 슬하의 보물처럼 하였다. 초공의 단엄한 성품으로도 그 아이를 보면 온 얼굴에 봄바람이 일어났고 자염 소저도 아버지를 뵈면 이를 찬연하게 드러내고 웃으며 옛 일들을 물어 사리를 깨닫고 밝으신 가르침을 배웠다. 초공이 여자를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배우는 것을 금하지 못하여 늘 소저가 아버지를 모시고 천문(天文)을 보고 깨우쳤다. 초공이 그녀를 특별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집안사람 중 제일이었다.²²⁾

어머니와 비등하다고 한 것에서 나아가 작품 내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인 아버지 초공과 짝할 만한 정도이고 성품이 훌륭하며 눈빛의 광채도 아버지와 비슷하여 타고난 기질이 초공과 진왕의 모든 자녀 중 으뜸이라

22) <조씨삼대록> 21권 61~63면. 정선희 역주, 『조씨삼대록』3, 소명출판사, 2010. 291~292면.

고 평가하였다. 아들과 딸을 모두 함께 평가해도 이 딸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다. 더하여 그녀가 만약 남자였다면 ‘공자와 맹자 이후 처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을 거라면서 옛 일들을 가르치고 천문(天文)을 가르친다. 특히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라서 남자들도 알기 어려우며 학문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분야이다. 그런데도 아버지에겐 천문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 이렇게 배웠기에 자염은 나중에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 예측하고 피할 수 있게 된다. 하늘의 징조를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자염을 평가하는 다른 대목에서도 “귀한 얼굴이 맑기는 여사(女士)와 같고, 태임과 태사의 덕과 요순임금의 덕을 지닌 것은 도학군자(道學君子)와 같아 규방의 성인²³⁾”이라고 한다든지 “만약 남자라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음양(陰陽)을 다스려 네 계절이 순조롭게 하여 앉아서 온갖 계획을 세우고 백성을 다스릴 정치를 다하며 세상을 진정시켜 만민을 구휼하고 어루만질 기상이 있으니,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쉽다. 공자와 맹자님이 아니라면 그 높은 덕을 비할 데가 없고 증자가 아니면 그 높은 효행을 당할 사람이 없을 듯하다.”²⁴⁾라고 격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학문을 가르치며 모든 자녀들 중 가장 뛰어난 자녀로 평가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관습이 확고해지기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문소설의 특성상 주동 가문 위주의 서술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현성록>에서도 소승상의 딸들은 혼인 후에도 친정 근처에서 살거나 아버지와 형제들의 든든한 울타리와 보살핌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넷째 딸 수빙의 경우, 형제들이 소씨 집 근처에 집을 지어주고 월급도 모아 주면서 잘 살

23) <조씨삼대록> 21권 114면. 정선희 역주, 앞의 책, 318면.

24) <조씨삼대록> 21권 114면. 정선희 역주, 앞의 책, 318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4) 딸을 분신으로 인식하기에 더 엄격한 어머니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딸 사랑은 자애롭고 따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딸에 대한 기대와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은 어머니를 차갑고도 무섭게 만들기도 한다. 사랑보다는 엄격한 규율을 가르치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소현성록>의 여가장(女家長) 양부인이 그러하다. 남편 없이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므로 더욱 그러했을 테지만 유배 가는 딸에게 하는 가르침은 매섭기만 하니 삶의 인도자나 지혜로운 모성 등을 떠올리기 힘들다. 그녀는 딸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한 후에, 『열녀전(烈女傳)』을 주면서 “이 가운데 여종편과 도미의 아내며 백영 공주며 역대 절개 있는 부인의 행적이 들어 있다. 그러니 네가 마땅히 유배지에 가저가 이 책이 네 주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중략)… 만일 이를 어그러뜨리면 가문에 욕이 미칠 것이니 구천에 가서라도 서로 보지 않을 것이다.”²⁵⁾라고 엄포를 놓는다. 여종(女宗)과 도미(都彌) 모두 절개를 지킨 여성들이다. 이렇게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여성을 거론하면서 딸에게 이들을 본받으라고 경계하고는, 만약 절개를 잃어서 가문에 욕이 미치면 저승에서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교영은 유배지에 머물면서 홀아비와 사통하여 함께 살게 된다. 3년이 지난 후 시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져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지만 사통한 남자를 자신의 집에까지 부르는 교영의 행실은 어머니에게 용납되지 못하고, 결국 독주를 먹고 죽게 된다. 절개를 잃은 것도 잘못이

25) <소현성록> 1권 21면. 정선희외 역주, 『소현성록』1, 소명출판사, 2010. 39~40면.

지만 집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에 대해 더욱 화가 난 양부인은 노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매서워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렇게 규율에 입각하여 매섭게 딸을 교육하는 이유는 딸을 자신의 분신으로, 계승자로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양부인은 실제로 또 다른 딸 월영에게 가권을 넘겨주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있는데도 출가한 딸에게 자신을 계승하게 한 점은 그만큼 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저술되어 왕실여성을 비롯한 상층여성들이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 문헌인 『곤범(壺範)』에 제시된 책들을 참고한다면,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여성들은 주로 열녀전(列女傳), 내훈(內訓), 여사서(女四書), 계녀서(戒女書) 등을 주로 읽었다²⁶⁾고 하니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의 학습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을 학습하게 하는 일이 어머니가 딸을 교육하는 일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딸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도 둘을 연결하여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못되거나 못한 딸을 어머니와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현성록>에서는 화부인과 그 딸 수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앞에서 화부인과 그의 아들 운명의 경우를 보았듯이 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품이 강하고 센 어머니를 닮아 딸도 거칠고 드세며²⁷⁾ 여기에 더하여 투기까지 하는 것

26) 그 외에도 시전, 서전, 주역과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 사서삼경을 읽었고 성리학자의 저술이나 부인들의 전, 지문(誌文), 행장(行狀) 등도 광범위하게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원기, 『『곤범』에 나타난 여성 독서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235면.

27) 승상의 제 삼녀 슈아는 화부인 필녀라. 얼굴은 옥미 눈 우희 빗긴 듯 티되 빙딩하고 괴질이 슈려소담하야 자약경영흐른 모친 곳되 엄 〽 쇠락흐른 소시 풍치를 어더시니 절세지피라. 다만 성되 강 〽 흐고 말슴이 민첩흐나 초준하야 덕이 적으니 화부인은 김히 사랑흐나 승상은 낮비 너져 상 〽의 엄칙 경계흐미 제녀의 지나게 흐더니, <소현성

으로 되어 있다. 화부인은 승상의 정실부인이지만 조급하고 드세며, 승상이 둘째부인을 들일 때에도 투기를 하여 책망을 들었던 여성이다. 판단력이 흐려 아들 운명과 함께 며느리 이씨를 구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양부인의 꾸중을 듣기도 했다. 이렇게 작품 내에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인물인 화부인을 그대로 닮아 똑같이 투기가 심하고 성품이 거칠고 드세서 덕이 적은 인물로 설정된 딸이 수아인 것이다. 수아의 투기가 유명해질 정도가 되자 아버지 승상이 듣고 “까마귀나 까치가 봉황을 낳지는 못하는구나.”²⁸⁾라고 탄식하는데, 딸의 못된 행실이 그 어머니에게서 왔다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18세기의 작품 <조씨삼대록>에서도 금선공주의 딸 후염이 어머니의 악한 자질을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악한 성품을 지녔다고 규정된다. 특별히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어머니의 악행 때문에 미리 악하다고 규정되며, 못 생기기가까지 했으니 최악의 여성인물로 설정된다. 투기 때문에 남편의 둘째 부인을 때리거나 욕하며, 이를 말리는 남편의 뺨을 때리기도 해 결국엔 친정으로 쫓겨난다. 친정아버지인 진왕이 자결하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꾸중하면서 3년을 후당에 가둬놓고 나서야 마음이 착해져 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3.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부모-자녀 관계의 의미

지금까지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아

록> 12권 88면~89면. 정선희외 역주, 『소현성록』4, 소명출판사, 2010. 412면.

28) 승상이 듣고 탄왈, 오작이 봉을 낳티 못호도다. <소현성록> 12권 93면. 정선희외 역주, 앞의 책, 413면.

버지가 아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주로 생활 면에서 색탐(色貪)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었다. 학문을 배우는 것은 집에서 숙식을 하는 선생님을 통해 하게 했는데 이때에 선생님의 권위를 최대한 세워주면서 체벌도 감수하게 하는 등 엄하게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훈계가 가장 크고도 강력한 규제로 작용했는데, 특히 아들의 여성 편력에 대한 엄격한 체벌이 자주 제시되었다. 서조모가 억지로 짚어 놓은 앵혈을 없애기 위해 여자를 겁탈한 것을 나무라고, 친구 집에 가서 우연히 보게 된 여자를 사모하여 외조부를 동원해 혼인을 이루어낸 것을 책망하는데, 매를 때릴 때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실신할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도 몇 달씩 용서해주지 않아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당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아들을 교육하기는 하면서도 은근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자애로운 아버지상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이는 작품의 주된 독자자였던 사대부가 여성들이 바라는 아버지상 또는 남성상이 투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겉으로는 엄하지만 마음은 자상한 아버지상을 희망했던 것이다. 이들 국문장편소설은 사대부 남성 중심의 가문의식과 규방 여성 중심의 여성의식을 적절히 배합하여 녹여내고 있다고 평가²⁹⁾되는 작품들인데, 이 같은 면이 작품에 형상화된 아버지상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가문의식이나 별렬적인 성향을 내재하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들의 욕구와 염원을 담아낸 것이다. <완월회맹연>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친정출입이 힘든 것을 차별로 인식한다든지, <현씨양옹쌍린기> 등에서 남성의 성적 횡포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든지, <쌍성봉효록>에서 탕 소저가 남편의 박대

29) 양민정, 『대하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연민학지』8, 2000. 132면.

에 여유 있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충고를 하는 등 수동적으로 억압받고만 있지는 않으며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움직임은 보이는데³⁰⁾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도 일정 부분 여성들의 염원과 인식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물론 엄격함은 있어야 하지만 자녀들에게 애뜻한 정을 표현한다든지 며느리를 딸같이 대하는 따뜻함이 있는 어머니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소현성록>에서 석부인은 화부인과 다르게 여러 모로 현명하고 훌륭한 여성으로 묘사되는데,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서술된다. 딸 수빙이 곁에 와 살게 되니 흐뭇해하면서택명(宅名)을 지어주기도 하고, 딸들과 헤어져 있을 때에는 진심으로 애뜻해 하면서 정이 담긴 편지를 쓰기도 한다. 며느리를 대할 때에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따뜻하게 대하니 며느리들이 친어머니처럼 따른다. 며느리들에게 거리를 두고 대하여 며느리들이 잘 따르지 않는 화부인과는 다른 점이다.

특히 <조씨삼대록>의 초공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아버지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들이 멀리 유배가 있으니 애처로워 밤잠을 못 잔다든지 아들이 자신에게 매 맞은 상처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 쓰다듬어 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면은 그가 딸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면에서도 잘 드러났다. 딸 자음이 여자 중의 군자라고 불릴 만하지만 여자로 태어났기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공맹(孔孟) 이후 처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을 것³¹⁾이라고 하는 것이다. 옛 사적과 천문을 가르치는 등 직접 교

30) 양민정, 앞의 논문, 143~156면.

31) 소설이 향유되던 당대에 실제로도 딸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학자 송시열(宋時烈)이 조카딸 숙인 송씨의 묘지(墓誌)에서 “이 딸을 장부로 태어나게 했

육하고 자녀들 중 가장 뛰어난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면에서 여성인 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아버지의 딸에 대한 애정이 깊었음은 조선후기 문인들이 남긴 딸에 대한 제문이나 묘지명에 잘 드러나 있다. 17세기의 김수항(金壽恒)은 시집간 딸이 16세에 죽자 묘지명(墓誌銘)을 지어 어릴 때의 일화부터 자세히 기록하면서 애뜻한 정과 슬픈 마음을 곡진하게 표현하였다. 이후 딸의 묘에서 케연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온 뒤에 쓴 제문, 죽은 딸의 생일에 쓴 제문, 대상(大祥) 이틀 전에 쓴 제문, 묘를 이장하고 쓴 제문 등 여러 편의 글을 통해 딸에 대한 사랑을 애절하게 서술하였다. 그 외에도 남구만(南九萬), 임방(任墜), 송준길(宋浚吉), 김창협(金昌協) 등이 딸에 대한 제문을 통해 딸의 성품, 능력에 대한 찬탄과 애정을 표현하였다.³²⁾

<조씨삼대록>에서 초공의 자상한 면은 그 아들인 유현에게도 계승되어 부드럽고도 감성적인 남성상을 보인다. 아내 정씨가 강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을 때에 그 앞에서 실성통곡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곡진한 마음을 담은 제문을 지어 애도한다든지³³⁾ 아들 명천을 아끼고 대견해 하여 그 아이 앞에서는 위엄 있는 기상이 없어지고 따뜻한 떡과 같이 물러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³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위엄 있고 자애로운 아버지상은 국문장편소설들에서 무(武)적인 기질보다는 문(文)적인 기질

다면 우리 집안의 이름을 떨치고 시댁 집안도 창성하게 했을 것을, 그러나 규방의 일은 비밀스러운 것이라 그 행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할 수 없으니 더욱 슬프고 애석하다.”(정형지의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 보고사, 2006. 154면.)라고 한 것과 같은 언급들이다.

32) 정형지의 역주, 앞의 책.

33) <조씨삼대록> 11권 96~98면. 김문희의 역주, 『조씨삼대록』2, 소명출판사, 2010. 219~220면.

34) <조씨삼대록> 12권 35~36면. 김문희의 역주, 앞의 책, 246면.

의 남성상을 선호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 <소현성록>에서도 무인 기질이 승했던 운성을 계도하여 문인 기질로 다듬어진 침착하고도 성숙한 호걸로 변화되게 하였으며, 소승상이 유언에서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³⁵⁾도 그러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 아들 교육에 있어서는 주로 생활의 면을 담당하지만 양 부인과 같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는 글공부를 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인자하고 부드럽게 자녀들을 대하면서 세심한 배려와 자상함을 보여주는 경우가 긍정되는 반면, 어머니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연연해하는 것이 좋지 못한 태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애정을 쏟아서 판단력이 흐려져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고 선한 인물을 꺾박하기도 하는, <소현성록>의 화씨 같은 어머니상은 부정적으로 서술³⁶⁾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애(過愛) 때문에 비난 받는 어머니는 <사씨남정기>의 교씨나 <유씨삼대록>의 민씨, <현몽쌍룡기>의 금선공주처럼 자신이 낳은 자식을 죽이거나 버리는 등 비정한 어머니들³⁷⁾처럼 극악한 것은 아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계도된다. 그러나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그녀 자신도 제가(齊家)를 잘 못하여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

35) 여러 아들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숙모 섬기기를 나와 같이 하고, 형제들과 화목하여 한 집에서 살아야지, 따로 나가 살면서 조상들의 풍채를 저버리지 마라. 선행 쌓기에 힘쓰고 유순하고 준절하여 덕행을 한결같이 펴고, 혈기의 분을 발하거나 화를 입을 징조를 만들지 마라. 운경과 운희는 내 삼년상을 지킬 수 없을 것이고, 운성은 범사에 아름답기는 하지만 고집이 과도하고 무력을 좋게 여기니 이는 선비의 덕이 아니며 맑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내가 늘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너는 마땅히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문덕(文德)을 닦고 무력(武力)을 버려라.” <소현성록> 15권 64~65. 정선희의 역주, 『소현성록』4, 소명출판사, 2010. 349면.

36) 선행연구(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4.)에서도 이러한 어머니(여성)를 작품 내의 반동인물 중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여 분석한 바 있다.

37) 한길연, 앞의 논문, 249~254면.

로 정실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가권(家權)을 둘째부인인 석씨에게 잠시나마 넘겨줘야만 한다. 이후에 가문의 계승권도 그녀의 아들 운경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석씨의 아들 운성이 받게 되니,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판단하고 대우하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딸 교육은 아들 교육보다 엄격한 면이 있었는데 특히 정절(貞節)과 관련하여 매우 강한 규제와 훈육이 이루어졌다. 국문장편소설 중에서도 초기작인 <소현성록>에서는 여성들의 자존의식이 표출되거나 그녀들의 삶과 인식이 비교적 세세히 표현되어 여성주의적인 소설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조씨삼대록>이나 <임씨삼대록> 등 18세기의 국문장편소설들에 비하면 유교적 이념이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질게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딸이 사통하여 정절을 잃었다고 하여 어머니가 직접 죽이는 경우는 다른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어머니 양부인의 독특한 위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아버지 역할까지 하는데다가 아들 소현성이나 큰 딸 월영도 그녀의 분신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그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씨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감정이나 천륜보다는 도덕과 이념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자녀대의 어머니인 화부인과 석부인을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엄격함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았다. 물론 감정적으로 처신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딸이나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조언한다거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어머니, 시어머니로서의 덕목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 간 관계를 주로 훈육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품의 향유층이 사대부가 여성인 것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녀들은 유교적 규범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배웠고 이를 또다시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엄격하게 훈육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성 개인으로서의 바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출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친정 아버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머니와의 관계였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아들과 딸들의 좋지 못한 성품이나 열등한 능력을 유독 어머니의 성품이나 자질과 연관시켜 평가하는 서술이 종종 등장한 점은 작품에 여성차별적인 의식이 담겨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17·18세기에 주로 향유되었던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소씨삼대록> 연작과 <현몽쌍룡기>·<조씨삼대록> 연작에 나타난 부모-자녀 간 관계 양상을 주로 훈육의 덕목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가문의 창달과 계승에 주된 관심이 놓여 있는 소설들이므로 어떠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했는가 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부자, 모자, 부녀, 모녀의 네 가지 관계 양상을 살펴, 아들에게 엄하지만 은근한 정을 표현하는 아버지, 아들 평가의 척도가 되는 어머니, 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교육하는 아버지, 딸을 분신으로 인식하기에 더 엄격한 어머니 등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엄한 가르침과 강한 체벌이 종종 부각되었는데 특히 혼인이나 색탐(色貪)에 관련된 부분들에 민감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혼

인이나 제가(齊家)에 관련되는 경우가 종종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작품의 주된 서사가 가정 내에서의 부부 갈등이나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며, 사대부가 여성들이 주된 독자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 그녀들에게는 학문을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며, 더군다나 작중 주인공들은 어느 정도의 영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은 단계적 학습보다는 어느 순간 깨치는 식으로 발전·성장하는 인물들이므로 교육 받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서술은 소략했던 듯하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체벌도 심하게 하였지만, 마음으로 걱정하거나 은근히 아끼는 등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세심하고 자상한 아버지상은 18세기 작품인 <조씨삼대록>에서 강화되었는데, 특히 딸의 재능을 인정해주거나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두드러졌다. 반대로 어머니가 딸을 교육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규율을 제시하는 등 규범에 충실한 어머니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딸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거나 계승자로 여기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해되었다. 어머니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거나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되며, 자녀들이 규범을 충실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훈육해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덕목과 방법을 살피고 자녀의 성품을 부모와 연관지어 평가하는 서술자의 의식을 포착함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관계 양상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가부장제와 부계 중심적 가족 질서,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가문주의 등이 점차 강화되면서 이러한 의식이 당대인들의 삶에 침투하여 작동하게 된 때이다. 따라서 여성차별적인 시선이 깔려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여성독자들의 소망도 담

왔기에 어릴 때부터 자신을 인정해주고 능력을 키워주며 혼인 후에도 곁에서 한결같이 아껴주는 아버지의 모습, 딸에게 곡진한 정을 담은 편지를 쓰는 어머니의 모습, 며느리를 딸같이 아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내기도 하였다. 물론 소설이 그리는 세계가 현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소설에는 당대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들어가 있으며 특히 국문장편 소설의 경우 향유층들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소설을 통해 당대인들의 일상을 재구해내는 연구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소현성록>연작 15권 15책, 이화여대 소장본. 정선희의 역주, 『소현성록』1~4, 소명출판사, 2010.
- <조씨삼대록> 40권 40책, 서강대 소장본. 김문희의 역주, 『조씨삼대록』1~5, 소명출판사, 2010.
- 김경미,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5~30면.
- 김정녀,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의 동향과 전망」, 『여성문학연구』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33~69면.
- 박영희,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시집간 딸의 친정 살리기와 ‘출가의인’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251~289면.
- 서영숙, 「딸-친정식구 관계 서사민요의 특성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171~206면.
- _____, 「부모-자식 관계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향유층의 의식」, 『한국시가연구』26, 한국시가학회. 2009. 403~435면.
- 서정민, 「삼강명행록을 통해 본 여성의 성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2007. 361~382면.

- 양민정, 「대하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연민학지』8, 2000. 131~167면.
- _____,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화연구』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101~125면.
- 이순규,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여성」,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1~421면.
- 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데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137~166면.
- _____,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171~199면.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1~242면.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4. 1~176면.
- _____,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29, 2008. 147~176면.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271면.
- _____,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45~62면.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면.
- _____,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소현성록 연작을 중심으로」, 『배달말』45, 배달말학회. 2009. 425~460면.
- _____,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망자 추모에 담긴 역학과 의미-서모, 아내, 아우 제문 분석을 중심으로」, 『비평문학』35, 한국비평문학학회. 2010. 361~383면.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293~328면.
- 정형지의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1, 보고서, 2006. 1~350면.
-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1995. 1~230면.
-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73~107면.
- 최수현,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친정/처가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326~360면.
- 한국고문서학회지,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2. 1~341면.

-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223~264면.
-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묘지명, 행장, 제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61~192면.
- 허원기, 『『곤범』에 나타난 여성 독자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6, 2003. 231~257면.

ABSTRACT

A Study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Korean Classical Novels
Written in 17th-18th Centuries

Jeung, Sun-hee

The present paper reviews four series novels written in Korean vernacular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The Story of So Hyeon-seong* (〈*Sohyeonseongnok*〉), *Three Generations of the Soh Family* (〈*Sossisamdaerok*〉) and *A Dream of Two Dragons* (〈*Hyeonmong ssangnyonggi*〉)—to examine how parents in the novels interact with their children. A special focus is given to the virtues taught to the children and the way they are disciplined. Since these novels' main theme is the family's prosperity and the succession of their bloodline, important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way how their characters try to pass on certain values and attitudes toward life to their children, and how they educate them.

Accordingly, the study analyzes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se novels based on the following four patterns: 1) father and son (a father who is stern to his son but occasionally expresses warm fatherly affection); 2) mother and son (qualities in a mother, which are generally assumed to have been inherited by her son); 3) father and daughter (a father who recognizes his daughter's talent and educates her); and 4) mother and daughter (a mother who considers her daughter as her alter ego, and thus who is even stricter to her). These relationship patterns reveal the interest, duties and wishes of women in noble families, who composed the main readership of the novels at the time of their publication.

Key Words Korean Classical Novel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Sohyeon seongnok>, <Hyeonmong ssangnyonggi>, <Jossisamdaerok>, family novel, the succession of their bloodline,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논문투고일 : 2010. 3. 31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4